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지니는 체험담으로서의 의미가 바래지는 않을 것이다. 구술사 방법론으로 할머니들의 삶을 담아낸 최근의 작업들을 떠올려 보면, 그 진솔함이나 당당함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이다. 이 글도 1920년대의 여성들이 그 전 세대 여성들의 삶과 소통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으로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너가 원치 않는 정절을 직히노라고 인생의 본능적인 성욕을 누르고 자연히 소사 오르는 사랑의 십을 억지로 트러막으며 허위로 신성하다는 생활을 한 것은 그 이면이 야말노 진실노 눈물나고 위치로읍고 참담한 것입니다.”(13쪽)

여성도 남성과 같이 똑같은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1920년대 신여성들의 문제의식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편집위원회〉)

## 「청상의 생활」

김편주(金扁舟)

이번 호에는 1920년 6월 『신여자』 제4호에 실린 김편주(金扁舟)의 「청상의 생활」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글은 50세 가량의 구식 여성이 청상으로 늙어 온 자신의 생활을 회고하는 체험담이다. 체험담은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장르에 비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장르이다. 하지만 리타 펠스키의 지적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함으로써 억압받거나 불가시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여성 경험을 공유하려는 자기 발견을 위한 고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성들의 체험담 속에서 그 시대의 여성들이 무엇을 자각하고 함께 고민했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는 16세에 네 살이나 아래인 신랑에게 시집을 갔으나 신방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2년 후 신랑이 죽어 그야말로 청상으로 평생을 살아 온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신이 수절하는 이유를 인습도덕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성에 대해 눈떠 가는 과정과 짝사랑의 감정, 성적인 욕망 등을 심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양반 가문의 법도에 눌러 걸으려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심장에서 필필 끓는 뜨거운” 정열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고백은 억압적인 제도에 대한 백마디 비판보다 절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할 듯하다. 『신여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원주 개인의 잡지라 할 만큼 그녀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잡지이다. 그녀의 호가 일엽(一葉)임을 고려해 보면 편주(扁舟)는 일엽편주(一葉片舟-편주의 한자)는 다르지만)로 이어지는 김원주의 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소재를 얻어 김원주가 기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잡지 후기인 「편집실에서」를 보면 <김편주 여사가 직접 아모 숨김없이 유려한 붓으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문장도 유려하고 성욕이나 연애감정에 대한 묘사도 1870년대 생의 필자가 썼다고 보기에는 파격적이다.

슬어설디엄는 物件이 되며 버렸스리잇가?

그것은 나! 自身이 沒覺하고 無知한罪보다도  
몬죄 우리社會의不察 우리父兄의 不道德을責任이  
더크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오날 우리社會의 現狀을보면 父兄의頑  
固한固執에 犧牲되어 나의過去가흔 不遇의運命에  
울고잇는 情狀한女性이 아직도 만히잇는 한편에  
그딴로 국제에 일너오는 世界思潮는 엇커는수업  
커서 그딴듯 국제에엇커는 禁錮의 문이방긋이  
열너자 自覺잇는 女子들이 勇猛스름게 뛰어나와  
서 女子社會를 改革하자는데 우리도 사람인以上  
堂々한人權을가지고 國家와社會를爲하여 일을하여  
보자는중 서둘러 自己의몸이 부쳐지는지 석여  
지는지도 모르고 犧牲的事業을經營하고 잇는女子  
들이 날노더하고 말노들어감을 깃버하느니라.

孔子의셔도 後生이可畏라고는 하섯지만 尼할법  
맞게못되노 어린女子들의覺醒이 그렇듯 促進함을  
볼나 나는 못내感歎하야 不知知러운 運命이두샘  
을 적시임니다 그리고 나도중 一 이世上에살며  
의나와드면하는 부러운 생각도 일지아나함니다.

新 女 子

그디들은 教育받은 年限에比하야 解放된時日에  
比하야 學問과 知識과 事業熱이참으로 超越하고  
優勝함을 衷心으로 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只今나와가흔 舊式女子가 永  
遠히남아! 보지못할 그어독고 矜々한눈을가지  
고드 自己는 那하하고 學校식사가 엇커  
나 工夫한女學生이 엇커느니라 하는것을보면 憂心  
스럼고 우수어외「그러면 그천 一 우리를처럼 사  
나회의節制밧혀서 밤이나 벌어먹노라고 그쳐네  
하고 안방구석에만 드러와혀잇지만는다고 各형의  
요」하고 攻訐하고 붓그려움을 주고십더이다.

그러나 그디네들은 何보非難과 攻訐아하여自  
己들의 몸을犧牲하여가며 自己들의使命을 履行하  
려한가지오?

나는 이리한光景을보고 우리의國家와 社會를爲  
하야 다시엇는 다함이라고 생각함으며 아슬너나  
의귀와 눈의 幸福이라함니다.

그리고 나는 그디들의 那듯 아를담고 奇特  
한마음에 無限히同情하고 讚賞하는同時에 느긋지  
만은 이케브러라고 餘生을 一 마음으로서나 精神으  
로라도 그디들의뒤로 중 一 應援이라드하여줄가하  
고 只今도방나뵈보기 眼鏡을쓰고 冊床압헤안쳐서  
尼養子(美國에遊學하고는總任)에게 무엇을 비호고잇  
는대입니다.(笑) 一九二〇六、七

三五

卷五雜과 其他 모든 書籍에 다음을 붙여 亞차현  
 겨울밤에 글너기로 밤이든 줄을 나즈며 蕭瑟한金  
 風이 梧桐나무를 떨어트리고 皎々한月色이 미다지  
 에 허리를 굽힌대 漢詩를 지어보노라 담우는소리  
 를 못드르며 悠悠한歲月에 몸을 갖기 몸을 맞고 겨  
 을 보낼새름이 었나이다.

아아! 이것이 무슨 惡魔의 作戲일가요? 옛  
 지하야 永遠히 만나지 못할愛人을 流星처럼 尼도  
 에 삼간! 쇠개하여서 나의 가슴이 멧십년 曠百年  
 이 지나도 나아보지 못할 암포고 꾸시는 傷處를  
 너이고 다시 만나지 못할게 흥엇스리잇가? 옛  
 들 尼동처의 同生되는 그사람은 니게 큰!致命  
 傷을 주고 큰! 打撃을 준! 業怨의 사람이 었나  
 다니가 靑燭寐婦로 三十餘年을 외롭고 슬피 지나  
 었지만은 그대 그를 戀慕하든 세가지 암포고 쓰린  
 經驗을 다시는 當히 여보지 못하엿나이다.  
 그런故로 只수도 그대 그인이 抑制할수 없는 怨恨  
 을 안고 배수로 記憶에 나타나서 心삼스럽게 無心  
 향든 너 마음의 슬픔은 자아닐해도 엄지 아니합니다  
 아아! 頑固하고 固執센! 父母의 崇拜하는 因

眞道德에 犧牲된 나의過去는 참으로 헛되고 헛되  
 고 쓰히되 었나이다 女子로서는 남의 안희노릇도  
 못하여 보고 남의 어머니노릇도 못하여 보고 사람  
 으로나서 사람다운 對遇도 못받고 사람의 義務도  
 못났고 社會의 人員이 되어 社會에서는 나의存在  
 를 몰랐고 나도 社會에 對호 責任이 무어신지도 모  
 르고 또한 봄이 오는지 겨울이 되엿는지도 모르고  
 다만 안방구석에서 밤버레노릇만 할다가 피가슬  
 코 精力이 소사오르는 苦業이 잇슬 靑春時代를  
 아모 意識업시 아모한것도 업시 다시 못날 過去로  
 보너 버리고! 이제 近五十歲에 老年을 當하야 神  
 經은 무되고 感情은鈍하야 처서 笑을 보아드 冥本  
 질을 모르고 眞分員을 만나드 증진함을 모르는  
 아조 冷灰같은 老廢物이 되버렷나이다.  
 荊露交흔 우리人生은 生命의 잇습 그剝削을 幸  
 福스럽게 意味잇게 지내라는것이 造物主의 本意  
 가 아니리잇가? 그러되 나는 옛지하야 一生을  
 你自己에 돌겨울도 못보지 못하고 또한 社會와 國  
 家에 對하야 다모 하업이 업시 그저 必當하면 밤먹  
 고 졸나면 자는 下等動物의 生活을 할다가 이리케

히 당을 하게 알지도 못하는 男子의게 情札을 보너  
거나 情懷를吐露할 수가 잇섯사오릿가?

그리고 나의貞操觀보다도 家法이 嚴重할보다도  
남의非難을 스리는것보다도 第二相對便의 意向을  
조적 모르고 잇지 女子된녀가 모래 풀은 마음을  
發表할勇氣가 잇섯사오릿가?

그런故로 나는 길고진一歲月을 남모르게 튀어  
는 가슴씩이는속을 하얗게는 한숨으로 살을찢어  
었나이다 그리노라니 갖들어나 깃기업고 헛웃음  
은 너얼골은 더욱 참아보지못하도록 몹시 상한  
였든 모양이야요 그리서 맛나는사람마다 어찌할  
몹시알로 너드나? 어찌가 편치안으나하는 웃는  
소리로 성가심드 만히 맛맛섯나이다.

그리고 그後에 동생에게드르니 니가 그러듯  
니켜하든 그의同生은 밀고먼一鏡城이라는 고을  
에 郡守로都任하야 名宦이라는 百姓의 頌德속에  
行政官吏가 되며잇다하더라 그러나 그뒤에  
니게 가장 親切이글고 또한 버가 第一敬愛하든  
동생중차一不辛히 解雇後 몇침으로 다시드라오지못  
할길음 여나버렸나이다 그리고로 니가 그리듯熱

新 女 子

情的으로 羨慕하든 그의同生도 우리집에 다시올  
일이 업섯나이다 그리고보니 그의消息을 다시드  
를길어 永遠히 막히여버렸나이다 그의消息을 드  
를들 무슨 神童하고 깃거울일이 잇섯사오릿가한  
은 부칠일이업는 너마음은 아쉬나다 그의消息이  
라드 흠! 드렸스면 즈음이一儂勞가될듯하더라  
그리나 야속할사! 不公平한運命의神은 그의消息  
조차 웃스너 돌너주자 아니하더라 그러나 심  
라컨디 明哲하고 天才잇는 그는 아마도 聖恩을  
넘어 벼슬이 회마다 昇級되며 國家에 柱石의臣  
이 되었스리라고 생각하섯섯나이다.

그러나 나는 옛달이 지나고 옛희가 지나드록  
비오고 구름々한 너물난이나 석리오고 이슬길흔  
가을밤에 얼마나 그를 생각하는心懷가 懇切하든  
는 니가 몰너섯나이다 그러나 사랑의相對者되는 그  
는 니가 그러케 안함같이 自己를 思慕하든들은  
함에도 심각지 못하엿을것입니다 그뒤로 아모  
리하여도 그를맛날수가 업을것을 외다클! 나는  
失戀者의 例套로 世上을悲觀하고 人情을冷々라하  
야 아모도업는 쓸々하고 寂々한 너밤에에셔 情

그저에도 그럴줄 처민줄 법면이 알고도 사랑의 줄에 의의며 내가 나를 잊지 못하는 나의焦悶과 困難은 果然形言할수 없었나이다.

아아 사랑의 길을 밟을수도 없고 그러라고 그를 니줄수는 더욱이 없스니.....나는 압포고스런 가슴을 썩이고 열물을 쟁그리고 몸을 비틀며 「아이고 잊지않가 進退가兩難한 尼身勢.....」하고 呻吟하는세가 數가업섯나이다.

그썩 나는造物主를 怨悶하고 人生을呪詛하였다이다 잊지않야 人生에게 愛情이라든 奇妙한것을 삼어노은以上 愛情의 나무가 마음디로자라고 크도록 雨露는 내려주지안고 못처럼 임이듯는어린 사랑의작을 물살회벗과 것친바람을 불게하여 고만 말나버리게 하시느나고요 這間에 寡婦의生活이寂寞하니 외로후니 하였섯지만은 오히려 그 뒷말하고 쓰리지는 아니하였나이다.

그의게 다행을말며가지고 다행을받아 주고 아니 하는與否는 勿論모를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러듯 못 참되고懇切하고 切實을情懷를 相對便에 알며 보지도 못하는 尼心思想 果然어더하였섯습나

하?

참 世上에가득한 모든悲哀와 苦痛中에 가장아름다운苦痛은 熱烈히 사랑하는戀人에게 切實에서 부릴々々알는 熱情을알며주지 못하는 그새일것이 더이다.

그런故로 그썩에 나는 이종은 가슴이 刺절듯이 압포고 괴로움을 眞情 眞情 眞情이 定運수가업섯나이다 그러서 사랑을 일우지못함이 이의 定運運命바에는 참아리 치마면으로 목을디며서 나의感覺을 손어기라도 하루밤비 그苦痛을免하고 심핀성각도 업지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실낱같은 목숨이지만은 그러케 겁끼은 어버라는수도 업더이다 그리고 다만 苦痛만苦痛되로 繼續업센이 더이다.

아아 그썩에는 아무리하여도 이苦痛을免하고 사랑의길을 밟을 다룬 무는道理는 絶對로 나서지아니하였나이다.

그썩로갈하면 女孀의 哀痛만 모른는 남자의게 보므로 오히려 是差恥라 하였거든 하물며 閨中에 잇는 寡婦의苦痛으로 할아리 목숨을손을지언청 敢

것만은 생각나는대로 相思의情을 말도잘되지않게  
 그적이다가는 또한 스스로 무슨생각을하고는 못  
 그러운듯이 화나는듯이 부스스쳐 버리고도하어나  
 이다 이리케 煩惱되고 憂鬱한心思를 진명할수가  
 업쳐서 엇던척은 空然히 마루로 뜰노와다갓다하  
 기도하였나이다 그리는동안에는 나는平生에 노린  
 란 무엇인지도 몰랐건만 그쳐 너가삼속에 잇는  
 感愾는 각담 무순悲愴한 노리를 부르고십혀 못  
 건의여하는것기도하더이다 이렇듯 의를히이고 惱  
 를뛰이는동안에 自然히 나의神經은 過敏된 모양  
 이었나이다.

그리쳐 공면히 노침고 미워하고 슬허하게되더  
 이다 그런故로 그쳐 우리같이잇든 下入들은 번  
 수쳐못한일에 두지람과 나프림을듯고 속으로 怨  
 心을 품은듯도 하였나이다 그리고 좀一情담고 親  
 切히지나는 사람까지도 다 冷情하고 泛然히여쳐  
 처이 그림사람이 너방에드려와서 오린 나야기  
 하는것까지도 성가시고 누구로되려 말하기도살  
 코 나야기치것흔것도 보기살코 바느질도 손에걸  
 나지안로 平素에 사랑하던 花草도別로 神奇하게

新 女 詩

보여지수안코 또한 그나마도 滋味못쳐서 만지고  
 다가내고 문지얼든 세간이나 器皿도 드라를餘念  
 이 삼기치아나하더이다.

그리고 그戀人은 그리우는 熱情이 나의全靈  
 을 占領한故로 너가웃고 말하고 먹고 手足놀나  
 는것은 根本能되로 器械的으로 行할원이었나이다  
 그리고 밤낮으로 믿거니이 우뚝하니안쳐 精神病  
 者모양으로 無心히 피여오르는 구름떨기를 바라  
 보고 空然히 침입는 한숨을發하며 뜻업시 데려  
 지는 落葉의소리들듯고 惘然히 숙절업는 눈물을  
 지울원 이었나이다.

그리나스스스 너가 아무리 그를 생각한들 무  
 엇을며 또한 그가철사 니마음할 알아준다 한들  
 무슨所用의 잇섯사오리잇가?  
 아아! 그와 나와는 永遠히 서로 맞날可戀이  
 업는 危險한결에 처나이다.  
 만일 그쳐에 그와 나와 손목을 잡게되었섯든  
 들이 우리두사람은 엮어진 舊戀에만 들든 父母  
 와 親戚의非難과 攻擊의 구렁에빠쳐서 身勢는망  
 칠것입니다.

김고 김호園中에 갖치어 봄이 무슨수로 山頂에 구름갓 없으면 시골에 있는 그의게 너똥을알녀 줄수가 잇섯사오리잇가? 아아十年功은塔이 하로아름에 문혀지는 셈으로 홍자千萬가지 空想으로 사랑의 階階를밧아 거진目的地에 達할듯한다가 문득! 그싱각을하면 고만 가삼이 나려안고 손뎌이 풀녀녀이다.

이러케 다음뜻칠길어업고 청신이 어지러워셔의를 뒤이다가는 힘여나 동희의방에나 가면 무슨한가운消息이 잇술가하야..... 일업시 각급차최가 최 이뎌말치뎌말컷헤 그의동심의 니야기를 무르디속을 모르느 그는 웃는발디답이나 간신히하고는 다시 무슨신피한말을 들디주지는 아니하디이다 그런故로 나는 남모르게 너가슴만 티을 디로 티우고 잇술없이녀녀이다.

그리고 그새 싱각에는 너가만일 그를 永遠히 다시 맛나지못한다면 나의靈과肉은 皆々라는類闊의분애 속전업시 죽아버리고 말것갓디이다.   
그뎌故로 그새싱각에는 너게잇는 무엇이라드接性을와 戀人의 사듯하고 懇切한慰勞의 말한마디

만 드스릿면 團이업술뜻하디니다.

그리셔 모든 북그리움과 廉恥를 무릅쓰고 담을넘고 귀천을뒤여서라도 그를차최가치 그의품에가 폭안져서 너가삼에 사뭇친恨을 遺恨업시 하 소연하여 보고드심고 너心臟에서 뿜々출는 뜨거운 情懷를血書로 길게々々적어셔 뿜々날으는 기력이 편에북쳐 보닛스면..... 흥는싱각이 하로에도 스물네번식나디이다 아아! 이것은 첫싱각없이오드쳐히... 이를수는업는 일이녀녀이다 그림셔 또다사 이라는너 처리는니하여도 모다 兪頼惱의 지나지아니하는것이오 第一「쉬운方針은 갖감게잇는 동희에게 던졌의 말을컨더가지고 엇더케 先後策을 講究하여봄의 可하다」이러케 혼자 싱각하고 버르고 버르다가 엇던해는 큰 冒險의길을 떠나 능숙한 究心決心을 거지고 동희의항예를 갓스나 동희를맛치 對항게되면 두한々々하는가삼과 함의 말문을 고만 停! 맛히리리고 말없이녀이다 이것 처하기도 實情은 한두번이 아니녀녀이다 그리나 맛흔디 實行하는것하녀녀이다 그리고 엇크디 眞實수의 문지출々할려는 便紙를와야 傳言道理도 업



慕하는情만은 가장 청정스럽게 敬虔하게 되며 너의靈을 직히고 잇는 것 것 더이다. 그리고 자다가라도 어머니께 하여서 잠간이라도 精神이 도는 처는 무슨 生靈보다도 가장 먼저 그를 思想하는 情이 번기갓치 尼臆에 感觸되더이다. 그리고 아모 意識도 업사 잠들었다가 석인 그사이에는 多難雜念이 심기지 않은 妙인故로 그戀情도 가장 神聖하고 純潔하고 참된 것 것 더이다. 뛰어난 기술의 無形한 그戀人을 想象으로 여안은 그녀는 아모 다른 念慮업사 그저 사랑스럽고 情답고 親한 思想의 달콤하다고 할지 식롭하다고 할지形容할 수 없는 상군한 感想을 품은 더이다.

그리고 일은 아참! 너가 석일씨가 아직도 먼! 석이 나의靈은 希送함을 속의 悔되일새도 그를 思慕하는 情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부조연하게 일종의 尼臆의門을 뚫드리더이다! 나는 삼작할나 석이마듯 그戀情을 마치 반갑게 즐겁게 滋味있게 對接하는 동안에 어느듯 公務를 쇄고 世上에 나오느라 빛이 찬! 할게 窓에 빛쬐이더이다. 나는 할수업사 그戀慕의 情을 여안은 처 무거운 몸을 움푹며 나려

낮었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회가 다하드루 그戀情으로 더 브리 울고 웃고 고한 면서 歲月을 헛되게 보일 사들이 더이다.

그밖에 나는 그를 그리우는 思想이 그날々々에 生命을 繼續하는 維一한 原料이 더이다. 또한 그네 나의 生活의 全盤이 더이다. 니가 한마디 말을 할새나 한발자국 움직일새나 한손가락 돌릴새나 한불건을 접할새나 한가지 일을 할새나 도모지 그를戀慕하는 情은 瞬間이라도 켜나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 니가 만일 몇千萬里 몇萬里를 켜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悽慘한 境遇를 당하더라도 또한 엇더한 憂患을 만나더라도 그를 思想하는 情은 決코 暫時라도 나를 켜날 것 것 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 만일 니가 그밖에 臨終時가 나르릿것 더라도 最後! 最後! 가장 最後生命이 손어질 그刹那에까지 그를 思想하는 마음은 켜를 것 것 더이다. 또한 죽어 처성에 가셔라도 이생의 記憶이 秋毫라도 남아있다면 변다시 그의 思想外에 다른 것은 업습 것 것 더이다. 그러나 々々々 그것 懇切하고 曲眞한 情懷를 그의 거 알낼 길은 아조 茫然하더이다.

新 女 子

뜻을 바라보면 무엇하랴 하는 생각으로 그를戀慕하는 마음을 스스로 누르고 무지치쳐消滅시키려 몹시煩惱하였나이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도모를 무슨眞理가 잠겨 있는지나 抑制하려면 抑制하려는 그것이 무지치면 무지는 그것이 한가지씩 焦悶의 씨를 더할 따름이오 그를相思하는情은 猛烈하게 붓는火勢와 같치 더욱々々 이런날뿐이더이다.

그러나 나는 엇더케한는지 그심각을 나켜바리고 그자리를 썩나보려고 굵고단々한決心을 품고有形한 무엇을 對抗하는듯이 머리를흔들며 손을 떨치고 冷情한態度로 변덕이 이러나서 안이대로 가서 안이일을하고 심丨심각을하려면 縮미은 懸腕는 안답것게도 잊쳐맡게도 착々말나부쳐서 毫厘의相距도 須臾의間이라도 썩나지아니하여 나의 眞精神 원丨마음이 맞찬니 고만그것의게 捕虜가 되고말뿐이더이다.

斷念은 精神上 一種自殺임니다 精神上 自殺은 肉體의 엇더한部分을 썩여나는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운것이더이다 아니肉身을 自殺할지인당 精神作

用을 막는수는업더이다 그리고 精神作用은 除限을식히더할수록 도리허 反動力이성겨져 한갓그勢力을 膨脹시키는 도음이될싸름이더이다 그故로 나는 그를나켜바리라고 苦悶하는 사이에 戀慕의情은 날날이 十度二十度 漸々高度에 達하여 어느듯 白熱에 이르렀것나이다 사려서 남에게非難받을念慮 次々希薄하여지더이다.

그러나 그저 뇌가 어느날 어느처인들丨 그를나출수가 잇섯소리의잇가만은 다룬쳐보다도 第一밤에 자려고 孤寂히자리에 누으면 모든精神이 集中되는처인故로 더욱 그의심각이 안타쳐올도록懇切한데이다 그리쳐 몽환한가슴을 손바닥으로문지르며 「아이고々々」呻吟하는소리를 發하며 轉々反側하다가 잇더케々々하게져서 겨우 잠이들더라도 모든認識이 마그막연이진 그瞬間에쳐지 그를심각하다가야 비로소 잠이들게되더이다 그리고 濛濛한 昏睡에쳐도 반다시 그를보게되더이다 그리고 잠은 醒은 醒은 醒은이라하여 잠든동안은 一切를 모두 이켜버려지것만은 오직 그를戀慕

상것더라..... 그리고 그의 風彩를 잠깐보아도 젊은이로는 드물게 볼정산코도 快瀾한青年다운青年이었다..... 혼자 이러케 생각하니 잊천생안지그가 限업시 사랑스럽고 情다운것같더라.

그리고 그후부터는 늘 - 낮것치 밝은말빛해서 시원스럽고 光彩있는 눈에 좀 - 돌린듯한 表情을 띄고 바라보는 그美男子가 눈에 아련이 곱혀서 나중수가 업더라. 그러나 나는 그날 그외외女子로써 父母가 定하여주지않은 다른男子를 思慕함을生意도 못하든런인故로 오히려 니가 니가 마음을 異常스럽다고 疑心하였나이다.

그러나 尼腦에박여진 그의 寫眞은 나날이 鮮明하여 갈수록아더라. 그리고 尼靈의눈은 아름답고 사랑의빛치는 그의 眼眸을 自然히 아나바라볼수는 업게되는 모양이더라.

그後 몇칠이 지났는데 알니장은내고 안마루에 안쳐져 있거리는 下女의 말을듯건디 그석月下에 커보는 그情다운男子가 니들저동서의 男同生이든것의 分明하더라. 그석에 無心히듯는데 하는 니다음수이는 무승異常스러운 波動을 나트키며空

新 女 子

然히 가슴이 울렁울렁한것같더라. 그리고 알고 보니 그의얼굴이 니들저동서와 비슷할것인사의 記憶되더라.

니들저동서는 才色이兼備하고 또한 婦德이잇서 果然稀貴한 淑女이엇나이다. 그러서 니가 가장 敬하고 또한 親로親히 지니든바이엇나이다.

그리고 그는 自己집안자랑을 過히 하려고는 아니하는이지만은 自己의 同生되는(니가 동산에 서본)이의 稱讚은 大段이 하든러이엇나이다. 그러서 나도 그同生을보지는 못하였으나 人格과才質이 非常한有望한青年인줄도 敬慕하여 오든러이엇나이다.

그런故로 그를 戀慕하는情은 날이지나고 말이 더할수속 더욱소소 드러워 지더라.

그러나 守節하는 寡婦로 외간男子를 그리게 됨이 니가 스스로못그림고 未安호듯도하고 罪인듯도하더라. 이것은 어렸을적부터받은 父母의 敎訓과 社會의 風俗이 尼腦에 깊히 觀念된外담이엇나이다. 그리고 周圍의 事情이 絶對로 許諾지안을 줄을確實히 해야됨이외다. 그러서 이미 석지못한

後園에는 무쇠울만치 四面이 寂々하고 쓸쓸한데  
달빛해 아래는 丹楓든 各色樹木이 그럴것치 어  
둑々々한기 날너잇는데 凄々히들니는 비러소리가  
曠想에 찬기인萬有를 가만々々히 沈을연히더이다  
나는 이곳에처도 慰勞될듯한 무엇을發見할수는  
없엇나이다 다만차고 쓸쓸한 가을바람이 弱한년  
몸을 침노하여 不知中 몸을 바르々 열개 할싸름이  
더이다.

아모데가도 寂寞外에는 싸르지만는 나는 그러  
케달랴고 人跡없는곳에서는 徒한층 悲哀만 늦겨  
지는故로 고만되면 人跡길노히쳐 도라오려고하는  
데맛찰 왼손편 露모후것으로브러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비석々々들나더이다.

그리쳐 삼학늘나 고기를들너 발자족소리 나는  
뉘를 바라보았나이다 소차웃남고 덩자관삼 두사  
람의 男子가 압쳐거니 뒤쳐거니 무슨 니야기를  
조용이할며 회적々々 걸어나려오더이다 뒤에오는  
아는 나의 들지 쇠아주머니가 分明하지만 一 알

해오는 霜蟲! 크로 알뜰 회개생간 舊은男子는  
누구인지 모르겠더이다 그러나 그의視線이 나의  
視線에 마주치는 瞬間에 나의胸은 엇전생인지 無  
人地搜에의 親知의人을 맛난것처럼 삼작늘나드루  
반가워하는것갓더이다 그러나 意外에 사람들을맛  
난나는 못그리온집에 거름을살나하여 急히 尼방  
으로 도라왔나이다.

더머지듯이 아릿목에 주쳐안주며 두군々々하는  
가슴을 疇疇하고 痛은숨소리를 낮초며 「망신히다  
젊은 녀편네가 무엇할라 밤에 혼자등산에를 올  
나왔것술가하고 그들이 疑心할엇갓다」속으로 이리  
케 중얼거리며 우뚝하니 혼자안헐다가 돌이 으시々  
추음을顯한 나는 미다시를맛치고 불을끄고 떠노았  
든 자리에 옷을넘은채 드려누었나이다 미다지로  
서여드러오는 희미한 달빛이 비귀우의 노머잇는  
니머리를 照일시 빛최는디 나는 이생각 처삼각  
으로 잠은 졸연이 오지아나하더이다 쇠아주머니  
와갓치 등산에쳐 건일든 그가 누구일가? 親한  
親舊인가 或은 家宅으로 누구되는이일가? 달빛  
해 빛치는 그의 일발은 참으로 丈夫답게 잘도

뜻가 없다. 생각한다든지, 그것치 아니하면 國家와 社會로 相對를 삼아 一生을 거둬 貢獻하기로 決心한 사람이면 勿論佳實하고 同情할 만할 것이요.

그러나 그녀의 女子는 社會와 國家에 對하여야 責任이 없는 것이었고 더욱 나는 感受性이 풍부하고 情에 날카로웠다.

그러므로 나의게는 이리케 獨身으로 지나가는 것이 한 큰 苦痛이고 悲哀이었나이다. 그리고 사랑은 好奇心만은 動物인故로 남이 못하게 拘束하는 中에서 더욱 잊으려고 의쓰게 되는 것이 常情임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周圍의 束縛및 해쳐 더욱 異性이 같이 위치되어다. 이리케 寂寞과 孤獨에 해되어

는 동안에 寒暑가 바뀌고 春秋가 지나서 歲月은 몇 번인지 갖것만은 나의게는 永遠히 줄거음고 사뭇한 幸福의 봄이 오지아나 잊었는이다.

아아! 이데에 나의게는 눈우에 쇠리를 더하는 셈으로 더욱 이룰터일事件의 하나더 심적었나이다.

이데에 나는 신산스럽고 쓸쓸한 寡婦의生活을 繼續하여온지가 어느덧 五年이 지나서 스러졌되든

新 女 子

가을이 되었는이다.

누구나 다 가을은 쓸쓸하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더욱 쓸쓸하고 愁心스럼게 가을을 맞이안을수 없었나이다. 그中 淸朋호든 어느날 저녁은 쓸쓸하고 寂寞한 밤에 愁心을 현! 燈잔불을 對하여 나 혼자 슬음없이 앉았는나이다.

밤에는 依例히 낮보다도 더! 구슬프고 쓸쓸하게 지냈었지만 그날밤은 잊지! 그런지 더욱 心懷를 定치못하여하는데 말나서 바람결을 쫓차 樓涼하게 들리는 短簫소리가 청승스럼게 나의 鼓膜을 울리더이다.

이데에 갖득이나 悲愴가 넘치는 나의 가슴에는 더욱 形容할수업는 一種異常한 感愴가 소박물나서 두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흐르고 神戀은 몹시 興奮되어 도모지 방에그되로 안젓술수가 업더이다. 그러서 不知中에 마다지를 열고 들어나려 첫나이다.

月色은 들에 가득하고 落葉은 金風에 날나는데 나는 가을밤! 쓸쓸한괴운에 몸을떨면서 뒤동산으로 通한狹門을 슬며시 열고 반가는되로 한겨

異性을 그리고 寂寞을 느끼면서도 妾의 改嫁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다만 두가지 條件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眞一 精神이 舊習에만 執着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眞節(誤解된 貞節)外에는 生命도 없다. 主見下에서 나의 寡婦의 後로는 나드르라고 베풀어 잇는 모든 烈女의 行蹟을 어디까지 褒彰할야 말아야 하고 또한 失節된 女子의 例를 들어 그들을 除地업사 誣罵하고 攻擊하며 사라치 나의 守節하는 것을 眞히 同情하시오 佳賞이 덕이 사 모든 일에 特別한 사랑과 厚待를 하십시오.

둘째는 나의 目前에 큰 前鑑이 보여 잇스나 그것은 너 親庭으로 四寸兄되는 이도 少年寡婦로 守節하다가 孤獨의 悲哀를 못나기 임이던지 우리 집 舍廊에 단나든 門客하고 엇더케 戀愛가 되어서 습그런이 나가서 들이갓치 사는데 그 女子女를 四男妹나났고 아드圓滿한 家庭을 일으키고 사는데도 우리의 원수 집안 사람이 그를 對面도 아니하고 謙遜은 집안에 家門을 드럽혔다고 그를 아조버민 사람이 認定한 것도 본사 같입니다. 그런故로 그 처나 는 아닐수도 없고 죄일수도 업사 그 죄마음만 傷

고 속만 타서 화를 이 할데는 업고 空然히 親庭에 가서 親庭에 머너 알헤서 푸념을 하고 怨罔을 하는 처가 만하나이다.

갓두어 나 尼身勢를 써가 크리고 가슴이 아프도록 앓처럼게 불상하게 녀어시는 어머니는 惘然히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나 엇위간 말이냐.....」 이의 비八字인 것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合當한 데의 집이라도 보너엿스면 하는 눈치도 보이다이다.

그러나 그 非目的으로 써어린 舊道德만 崇拜하야 女子는 엇것든 두번 社會가 지말아야 사람이 라고 主張하는 나의 父兄알헤서는 엇지하는 수가 업섯습니다.

「아아! 우리 社會의 習慣이야 말로 妾 不公平하고 不合理하고 不道德한 지오 엇지하야 男子는 옛 번을 장가드러도 無防하고 女子는 不更二夫라 하고 改嫁를 不許하야 이와갓치 當者에게 다시 업는 不幸을 만들고 認親兩家에 이밋듯 巢窟을 세치게 하리릿가? 그리고 우리 社會의 反面에 淫奔의 婦女와 自殺하는 女子가 比較的 만흔것도 이 처담이 아닙나외? 만일 自身이 석다름이 잇서 夫라야 改嫁할必

그러나 나는 貞操의 觀念이 임의 깊었고 또한 女子의 弱한 마음이라 무척은 父兄의 頑固한 뜻을 생각하고는 참아 實行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로 傷하고 압론것은 니 마음현이였나이다 나는 九萬里長天갓흔 감수하고 아득한 말고면 안길물 생각하고 奮々하고 寒心호야 고만 이적은 몸술 漢江水 金흔물에 痛楚실하져서 이세상에 처 보아는 모든 철음과 苦痛을 니젓스면..... 한는 색도 하루에도 數번인지 몰나이다.

이러케 나는 어되서든 자 어느세든지 슬호고의 로오나외 自然히 媳親兩家의 어들들의게 未安호고거복호고 의척려온心愾를 도을현이였나이다.

닌한물등이가 쇠집에는 큰 집이오 親庭에는 큰 근심머어리였나이다.

그러쳐 나는 이념은 天地에 이조고만 물등이 하나를 容納할곳이 업는듯한 悲哀가 더욱 닉찰자를 단었나이다.

이러케 닉물아 쉽게되나외 世上사롭은 모도다 이니게 冷情호고 野俗호케만 구는것갓흔데다가 더욱이 쇠어머니나 동셔되는이들은 니가 쇠집안가고

守節호고잇는것을 오히려 밍살스름게 귀찬케터이 는 모남이더이다.

하로는 몸이앓혀서 니방에가 외로이 누엇는디 건는방 퇴마루에가 쇠어머니와 맛동씨가 파조안 췌쳐 「남이라고 寡婦되여 守節호고 살나고 밤낮 잠바져서 무슨셔」 셴가」 하는 쇠어머니말에 등셔 는 멧다라 「글썽지오 황」 그러케 못견되겟스면 八字라도 못취가지 왜 밤낮얼골에 愁心만되고잇 쇠어 집안사람들외지 거복살스름게술외오 잇젓든 청송구려야오 오죽 漣瀾호면 다희치마속에 췌 婦가 일어나오」 이말을 주고밧고 하더이다.

이런논처 처런논처 모르지는아니하엿지만은 이럴말을 直接너귀로 드르니 갖득이나 傷호고 압루고셔려음은 나의 마음이 果然엿터하엿스리잇가?

마음이傷하나 누가同情호야 주는이도업고 몸이 앓하도 누가 알아주는이도업는 可憐하고 불쌍한 이몸에 이렇듯 無情호고 瞬眛한말외지 듯게되는

나는 다시 하염업시 호르는 뜨거운눈물에 抑鬱호고 은心思를 사을현이였나이다. 그새에 니가 그러한 설음을밧으며 또한 그런

新 女 子

어를 단나리 잤나이다

나를 보시는 父母는 인담고 가엾은 表情을 띄시고 惘然히 눈물을 지시고 오래간만에 맞나는 오라 버나나 兄弟들도 徐집 왔느냐고 심々하게 人事할뿐 이더이다 그러나 親庭에를 간들 무슨 慰勞될거시 잇고 滋味맛칠데가 잇사오릿가?

그리쳐 親庭에가서는 아무조록 조흔났으므로 快活하게 行動을가지려하였으나 親庭에서도 이리케 할스한 態度만보일염안아라 原來마음이 신산스리 유니外 自然후히고 형이여질듯한 한숨만나올다 음이더이다.

이런말을보시는 어머니의서는 命으로 가슴이 무더지는듯 웃음이 불상이되이면서도 것호로는 두 평한듯이 청가신듯이 「어서 나가 죽어 이말할 제편을 아나보았스면...」 뜻을 언찬을 너의식집 에 가있거라 出家外人이라나 할사더이다.

이런 소리를듣는 나는 식집에서나 親庭에서나 다 賤타이노릇을하나 하는생각이 다시 약속하고 처를눈물을 抑制할수업섯나이다 아아! 하날 에는 별이잇고 서에는 뜻이잇고 사람의게는 것음

이잇다 하지만은 慰勞를맞음데도업고 사랑하여 주는이도업는 이몸은 잊음이란 그림자도 업섯나이다 오직 것침들에 불노닌친바된 의로운 바외를 갖쳐 차고寂寞혼원이었나이다.

이체에 나는 뜻아참 달밤에 얼마나 인담은눈 물울 흘이였스며 봄바람 가을비에 얼마나 신산스런 한숨을쉬었사오릿가?

그체에 나의 눈물의 따르치아나하고 흥남이에 물고이듯 고여잇섯다하면 나의자리는 눈물에 썩을것이오 나의한숨이 發散되치아나하고 風枕에 바람처럼 모티여잇섯다하면 내방에는 차고술스한귀 운이 가득하여 니몸은 冷却하여졌을것임이다.

이렇듯 哀絶悲絶한 生活을길게繼續하다하면 나 는 衰弱한몸이 전타여날것갓지 아니하더이다.

그리쳐 엇던새는 모든 붓그림움과 廉恥를무루 끄고 어머니와 잇쥬어서 庶母나 가디이니하는소리 를 드를망녕 맛당한디 改家라도 잘가보자는 생 각도 호두번이아니엇고 또한 엇던男子가잇서 나 들 참으로 사랑하고 同情한다하면 담을넘어서라도 처라나할것갓기도 하더이다.



머리에 玉手로 빗질하는樣이 니가 스자르 되!  
임부라고 생각하여 아! 한창 피어오르는 笑容으로  
갖춘 니가.....

아아! 人跡이 나르지 않는 깊은山谷에 寂靜도  
피었다가 몸솔게 불어오는 거센바람에 속절없이  
떨러져버리는 약가는百舍花갖춘 尼身勞하고는 다  
시 物를 눈물의 泪도는여가 만났나이다.

엇편에는 차고철々한자리에 외로이누어져 니가  
니! 가상에 안기인함스러운 두것을 두손으로 부  
들키고 아아! 이젓은 엇지하여 貴여운 어린아  
희를 永遠히 알녀보지못할가신가.....아아! 膏春  
여 아름다운 이름은 엇지하여 永遠히 사듯한 異  
性의 품에 안기여보지못하고 速절없이 睡어버리나  
? 하더 다시 하임업는 한숨이 自然히나오더  
이다.

이제에 나는 物質노는 아모不足이 없었나이다  
그러나外 自然 나의精神上悲哀와 寂寞의씨는 늘  
드는 歲月과 함께 더욱々々크게 長成할뿐이 터이  
다.

그럼中에 이제에 나의 마음을 더욱 傷을 가하는

新 故 子

것은 우리들지동식의 内外가 鶯鶯의화갓치 쇠로  
情담고 사당스럽게 지니는 樣이 었나이다 더욱이  
그두사이에는 귀여운 玉童子가 있쳐서 밤낮으로 丙  
外가 마조안켜 무릎에 안쳐놓고 어린것의 天真스  
러운 지롱에 살々살々웃는소리가 잇다금々々々  
스런 니방에 가지 傳하여오더이다.

아아! 갖흔사람으로 갖흔집안에서 엇지할야피  
편은 寂寞 幸運에 옮기고 이편은 이렇듯 不幸  
에 옮게되엿는가하여 외담고부러운 心緒가 더  
욱 니가슬을 쓰리게하더이다.

이제에 나는 物質에 그리울거시업고 肉身에 아  
모勞力한것이나 缺陷이 업스니 自然精神의 缺陷만  
더욱 痛切이 크게 寂寞이 었나이다 그리쳐 그쳐  
生疊에는 夫婦間愛情만 잇스면 서로 손목잡고 단  
니며 비터먹어도 願이 업슬듯 한터이다 그런故로  
하루는 乞人内外가 後園담밧 陽地에 안켜 우습  
칙진니아기로 서로 慰勞하는 樣을 보고 나의 身勢에 比  
할야 오히려 그들의 處地가 부러웠나이다.

이렇듯 부친정어업는 마음 하소되할데업는 恨은  
를 親庭에 나가면 중々 慰勞를 엇을가하고 或親庭

숨을 쉬우고 고기를 죽이고 다라나든 데와는 달랐을  
 것을 萬一 니가 이 세 죽어 男便을 사라 가면 잊지 될  
 가..... 그러나 죽은 魂이라도 살아 슬퍼 갖치 아모  
 칠이 아니겠스면 잊더케..... 그러나 前生因緣이면  
 죄성이 가시야 滋味있게 살아 볼 터이지..... 이리케  
 生覺하면 男便의 魂이 生時와 갖치 어는 別堂 갖흔데  
 잊고 妙喜방에 초합쓰고 분홍 두루마리 입고 안  
 컷는 모양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터이다.

아아! 니가 이 자리에 서 이世上 신신치 안코 서  
 려운 髮을 보지 말고 그만 髮拔 죽어서 죽은 魂이라도  
 魂々 날나싸라가서..... 외롭고 쓸수한 禪房에 서 長  
 々歲月을 이리 헛된 空想 덧업는 夢속에 헤미 일 현이  
 보나이다.

그대의 나는 어느날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 서나  
 무슨 일을 할지나 누구와 나야기 할지나 드모지 寂  
 寞과 悲哀의 魔는 瞬間이라도 서나 지아나 할 터이  
 다.

이 세에도 남들은 魔事라고 써 드는 일이 만히 있  
 터이다 그러나 나는 모도가 시연치 안코 사들한 魂  
 이고 더욱이 누가 約婚 할 하였느니 의심을 가느니

하는 소리를 드르면 마음이 공연히 신산스려 지 터  
 이다.

이러케 寂寞의 悲哀가 高度에 達하고 보니 아모 情  
 도 돌지 안코 아모 못나를 만흔 情도 없시 無情한  
 게 他界로 가버린 남편을 글이는 情으로 만은  
 到底히 生活를 繼續 할 듯 하지 못 할 터이다.

그리고 죽은 男便外에 나와 갖치 살아 잇는 그  
 누구가 글이 온 듯 할 터이다.

또한 나가는 무슨 큰 缺陷 이 잇쳐서 왔다 시  
 그것을 처와야만 나는 完全한 生命 잇는 사람이 될  
 것 터이다.

그리고 니가 잇는 곳이나 니가 가는 곳이나 너다  
 암속에는 四時로 冷冷한 겨울 바람이 불어 서 나외  
 靈과 肉은 바동한 무엇의 魂에 안기 지 못 할 면 반다  
 사 얼어 죽을 듯한 凍집이 늘니 心인 精神을 支  
 配하고 잇 터이다.

그리고 나는 才位이 남만 못지 안라는 自信은 眞  
 지아나 하였나이다.

그러서 아찰히 빛이 불그레하게 미다지에 빛칠  
 洗手하고 鏡臺 앞 해안 터서 윤이 흐르는 簾안

獨身으로 사랑받고 무엇을 하며보리라는 生意는  
 되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바야흐로 무르익는 青春  
 時代인故로 다들動物과 같음임시 天孫인 性慾만  
 發達되야 異性を懇切히 그리게되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다들 異性を맞날期會도 없었지만  
 이의腦에 觀念되바가 있는故로 敢히 다들異性を  
 思慕할生意도 못했나이다.

다만 어리고 靑업은 一新郎을 슬피 思慕하고  
 날마다 밤마다 悲淚를 흘리고 철어온 눈물을 흘릴뿐이  
 었나이다.

죽을척하지 어머니 아버지나 부르고 自己안히  
 인 나는 지나가는 손처럼 알든 그 어린新郎을  
 그림도 못나쳐서 눈물을흘리며 悠悠한 歲月을 보네  
 는 나의身勢야 말로 眞情이 차라웠나이다.

그런故로 혼자 한가로운 안컷을쳐나 아모도 없  
 는방에 홀노실음을임시 누엇술새 곱수히싱각하면 나  
 의멀고먼 안길은 아조감수하고 漢々하여 아모  
 希望이 없었나이다.

그리쳐 이세에 나는아조 厭世主義者가 되여世  
 상이 모도가 귀찮고 시들스리를얻이내이다.

新 水 序

엇던척 마음이 몹시 傷할척는 時刻이 드라가느  
 라 씩각스스하는 時計소리외지도 踏밧고 창밖그  
 로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신산스럽고 잉수하고날  
 나단니는 파리소리에도 화가나고 문간에치 썩뜨  
 는 어린아히들의소리도 식그럽고 번적어리는세  
 간에 장식하지도 보기싫코 죽수이 차인비단옷도  
 시들스럼고 아조눈에 보이는것 귀에들니것이 다  
 一신수치안코 성가시여쳐 공연히 성을내고 슬피  
 임시 花를발쳐도 만화나이다.

靚切하고 작스하다든 나의性味는 아조變하야冷  
 情하고 맛업는 사람이 되며 변했나이다.  
 도흔것을보나 憂鬱은것을보나 성스하니 그척그  
 림가보다하고 잊을따름이였나이다.

밤낮 무슨일에 落望되고 失心한사람처럼 愁心  
 이 가득할얼굴을 기우리고 밀거나안쳐서 무엇을  
 생각하고 窮理하고만 잊었나이다.

只수는 新郎이 옛살이나와 살았스면 얼마나 좋  
 스러니 只수는 살았스면 佛法받던노릇을 하였을  
 것을 只수는 前에 나가 或손목을못삼으면 뿌리  
 치고 쳐다보고 웃으면 얼골이 黧인척 무안한우

永遠沈黙에 들었나이다.

아아! 그제에 나의 失望과 失父母의 落膽과 親庭父母의 痛념이 果然였더 하였소리의잇가?

이제에 나는 죽는男便에게 무슨情이 그리듯하고 사상이 金鍼사오리잇가만은 男便은 小天이라 貴

重한줄을알고 女人의 喪夫를하면 天地拆을當하야 運命은 命의씨여진다는 뜻가는 牛鬼으로 精神

엄시 식람노 왼손 無名指를 穿어 幸어나 살아날 가하고 숨이지려는 男便의임에 홀너너었나이다.

그러나 暫時 숨을들었다가 고만 갈게々々잡이 들고 말았나이다.

醫藥과 誠意는 不足하지 아니하였건만은 命의 天命이라 엇천수 업더이다.

이제브러 나는 二九의 뜻다운 나이로 未亡人의 情송스러운 거상옷을 입고 뜻이 웃고 나뉘가 출후

는 아아름다운 世上에서 뜻사람은 다! 줄거 음에 겨워 노리 부르건만은 오직 나홀자는 여

물날 겨을밤에 하였음은 눈물과 한숨으로 벗을 삼아 寂寞하고 신산스럽고 쓸々한寡婦의 살념을

繼續할인이었나이다.

그리고 失父母待下에 哀 痛을조리고 지너면서 울

고 심하도 을지도 못하고 심어도 설은 괴식을 못보 이고 지너었나이다.

더욱이 한달에 두번씩 맛나는 期望날이나 한희 한변賞하는 忌日에는 우름이 목구녕까지 처맛되

도 어름들도 거시지만 「설어하는 寡婦 食집가느니 잊지니」하는 소리가 羞恥스러워져 다만 조고마한

心臟이 더질듯한 설은 가상을 부들키고 속으로만 늦겨울한 이었나이다.

아아! 이제에 나의 身勢는 憊컨디 烟氣를 吐는 듯한 몸비에 魂족이 피며오르는 한가지 月桂花

가 또한 바람이 급히불어 의취롭게 겨거질것희 나이다.

그제의 朝鮮女子들은 全部男子들의 附屬物이오 타라지목숨에 지나지아니한故로 喪夫한女子는 아

모餘望이 업는줄노 周圍의 다른 사람들도 그리 케認定하고 自己도 그리케 絶望되여 버틸물건으로

自處하였나이다 그제 女子는 社會에서 아모한일 도업고 또한 改嫁하는 女子는 身分이 쇠러지고 그

子女도 清官을 不許하였습나이다 그런故로 나는 그제의

가 子女의 婚嫁는 마즈막이라는 條件下에 취주신 만  
흔체간 衣服 儼物을 엮어가치고 식침에 들것나이다  
식침에도 삼남凡飾이라든지 식父母의 사랑이라  
든지 男女下人の 舉行이 우리집만 못지는 아니할터  
이다.

그리나 나는 엇컨생인지 감작이樂園에서 외로  
운침에 귀양사리온것갓치 失望되야 空然히寂寞하  
고 신산스러운 懷抱를禁할수 업섯나이다.

그리고 그덕에 나는 아직 異性을 그리울만한  
철이나지도 아니할것지만은 所謂新郎은 죄의어머  
니품에서 쫓을주무르고 용석하는 어린아희라니  
밤에는 드러오지도 아니할려거니와 식父母가 드  
러보닛지도 아니하더이다.

그리나 自然나는 쓸수하고 넓은空房을 혼자  
히며 호르는歲月에 몸을맞겨 시름업시 날을보되  
고 말을 지닐뿐이엇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親庭父母兄弟를 그리는  
눈물의 淚를사이가 업섯나이다.

덧업는 歲月은 어느듯 식침와쳐 잊히녀름을맞  
게되엇나이다 비가 부실／＼오는 엇던날 靑역혀

新 女 子

쭈뼎며 사랑에식 들업든 新郎이 풀이죽어서 안으  
로드러오며 枕업시 어더니하며 마루우으로 올라  
스는데 식어머니가 마주나오시며「슬안녕고 왜드  
러오니」하시며 疑心스려운듯한 눈으로 新郎을바  
라보는데 新郎은 어리광스런 목소리로「머리가압  
히고 추워」하면서 눈물이 들성스스하며 죄의어머  
니 가슴에가 너머지듯기 안기더이다 문틈으로엿  
보고 잇든 나는 다시 枕업시 나오는 한승과함께  
의업은 歎息이 徹철노나오더이다.

「슬십이 언제 亭子보라」하는格으로 죄의어머  
나 자라 男便구실을 할여불가하는 寒心스런 심  
각에 가슴은 다시 渾々할며지더이다.

그리나 이덕에는 그럭도한줄기 曙光이 아직  
지스아니호혀이오 稀微하나마 希望의질이 아희압  
에잇슴쳐이엇나이다.

아아! 엇지 뜻할엇스더잇가! 그나마도 나  
若々한 前程을맞기엇든 나의將來男便의 意外에病  
으로 意外의 죽을줄을.....

新郎은 熱病이라는 急한病이들어 덧시란에 드미  
살아타는 暫時的 沈沈을 이世上에 머므르고 고만

되었다.

新郎은 몸부림하듯 팔과다리를 함부로 털수 터지지며 울나더니며 如前히 困히자는데 그럼처럼 그간밤이 시며 창살이 흰홍게되었습디 나는 미다지를 가만히열고 어머니방으로 드리갓나이다.

벽상에셔 무엇을 스니려다가 문여는소리에 홀 웃드라보시는 어머니는 너의首飾이며 衣服이 감쪽것홀으로 무안한듯한 귀식으로「新郎이 나이더 무어려셔..... 어셔 시앗외 성치 못드러게」하시며 수모를 바라보시더이다 房안에 안킷든 손님들은「그럼으로 열두살의 무얼 안깃셔요」하고「齊히 어머니의게 同情하더이다.

아아! 이것이 무슨사람의하는 慶事로운 婚姻 이리잇가? 나는 밤시도록 눈한번 못쳐보지못하고 그간밤을 육박머시이고나니 그날아침에는 머리가알프고 精神이 쇠하며 괴롭기限止업더이다 그리고 그날아침에 회가 미다지에 반이나 빗칠 녀야 이려난 新郎은 얼굴한쪽에 분홍홍을 벌갓케칠하고 분홍치고리소리가 죄다 얼룩이적가지고 주먹으로 눈을바스며 나오는 핏을본! 하인

들은 우송을못관아 구척갓모여셔셔 수군거리며 칠수디더이다.

그나그런인가요 新郎이 나이드어리지만 性味가 붓그럼업고 탐방디는 아희이여셔 장가와셔 三日을치르는데동안에 한번은 착난하다가 귀권에가빠져셔 보신과 신발을 죄다 버려가지고 드리와셔 나의 얼굴에 모닥불을붓는듯이 붓그림을주고 드 한번은 니쪽하 남팔삼려은것을 가지고 엇더케못 살게 물었는지 아희가 시아갓시보라고 소리릴지 르며 울더이다 그러니 나드그쳐 아모知覺은업섯지만 그러드 新婦인 나의 붓그림과 未安함 아그엇더 하엇스리잇가?

아아! 들쳐 엇겨자고! 長威한 사람이라야 할 婚姻을 이려케 어리고첩업는 것을셔여 이러한 悲劇을 나라나게할나와? 그리고 우리社會가 왜 이러한惡習을 默許하는지 나는 암만히드 알수업더이다.

그럭저럭 三日을치른後에 식집가셔 식父母의게 奉孝하고 君子의게 承順하야 부모의게 육둔나지 말나는 어머니의 教訓을 눈물노드르며 우리父母

「아이고!」 나이는 어려서 칠십서 보이지만 그리고도 알지못하던 자나 회순으로.....」마음이 조마조마하 면서도 한편으로 그리하기를 기다리고 잊었나이다 그러나 新郎편에서는 아모消息이 없더이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디 안방과 건넌방 창남에서 수 천사수호고 짓거리는 소리도 들이 안어지고 萬 籟가 죽은듯이 孤懸한디 손님으로는 婦女中 한사 랫의 窓밖에서 숨소리를 들이고 新房을 엿보고 잊 는 모양인디 이윽고 新郎이 自己의 衣冠을 벗는지 부스럭~한디니 조곰있다가 첫혀서 夕々天眞스 럽어린아희의 잠자는 숨소리가 들릴원이 더이다.

아하 여려분이시며 웃지마십시오! 어린아희의 잠자는 코소리는 新郎이 終日사람들에게 부닥 이다가 疲困함을 못나서 新婦의 옷벗기는 것도 나 지 버리고 퍼노흔자리우의 그들로 쓰러져자는 것이 더이다.

約婚되었다든하여 大姑母님이「新郎이 나의 비부 어라서.....」이치야 열두살이리! 그러도 熟成하 든걸!」하사든말은 들었첫지만 그러도 그러케까지 철부지인같은 듯하지아니 하였첫나이다.

나도 그대父母압해서 융척하던제가 엇그제엿지 만 암만 어릴척도 이렇시스리운 남의집에 와서 칠드르고 그러케쓰러져잠만 잘것것지는 아니하더 이다.

그대에 나는 잊지 그럼지도 모르게空然히 窓 心하고 心亂한상각에 가살이 무거워져서 不知中 후! 한숨을 쉬었나이다.

그날그대외지도아모 인찬은것이만 求景도못하든 나는 그날처벽브리 비로소! 처음인산스러운 듯 집을 맛보았첫나이다 그리고 동지첫날 건넌방이 라고는 하지만 그날밤은 왜 그리길고 支離한자 모른것더이다.

나는 이삼각 刺刺理로 고상수수 졸납지도아니 하는디 이윽고 일어나서 첫담 우는소리가 들니자 이방처럼에서 自鳴鍾이 서로두시름을 향!~! 처터 이다.

나는 수으로 아직밤을 많이 밀었구나하고 생각 하니 암만해도 다리가 처리고 물이거북하고 困히 처 전될수가없는故로 몸을우우의 芴芴한호로 가서 거기 가터여안져서 하리를 좀! 펴고 다리를 뻗

모르지만 아버지의親舊되는 李監復의 밋버운 紹介하야 南村사는 徐承旨의 셋째아들과 나와約婚이된 모양이더라. 그뒤에 將來夫婦가되며 百年을同居할 우리두사람은 婚姻은 왜하는지 夫婦란 무슨意味인지도 모르고 또한 以後에 다투을 悲喜도 預測을출을 순히 몰랐었나이다. 다만父母의命은 무엇이든지 삼갔고 從順할기심줄을 알았을뿐이엇나이다. 勿論兩家父母는 우리두사람의 意向을 모르려고도 아니하였섯나이다. 그後로 四柱를보이니 樞日을하니 불치를받았느니 하더니 니가 十六歲가얼마 남지아니한 눈보라치고 말한 첫말보름날이 나의婚姻이라하더라.

사람만히 모혀서 수선거리고 기를잡서며 머리 압프든 그날에 나는 舊式新婦의 차림을 갖 초~차리고 乳母와 것시의게 스을니며 단니며 거부하고 괴롭고 不安한 하루를보이엇나이다.

婚姻날은 사람의 一生에 한번만나는 第一것같고 풍겨온날이라건만은 오직 나는一生에 가장 貴치안고 성가시고 신수치안은날도 싹꼭되더라이다. 未來가 不肖만것은 되줄이 믿려 허아닌

緣故인지도 몰음니다. 그날저녁에는 仲媒의 引導로 所謂新房에를 드러갔나이다.

나는 危險하고 무서운곳에 가는듯한 感情을가지고 新房에 드러섯나이다. 그리고 敢히 나는新郎을 바라볼勇氣도 업섯나이다. 다만 觀念된바어느식외라니 依例히 준은느리알고 蛾眉를숙이고 仲媒가 안쳐준되로 순한번 음죽이지안코 操心스림게 안쳐서 두군~하는 가슴을 썩안고 거부할스된 숨소리를 낮추노라. 의술 사름아엇나이다. 親線에 稀微히 빛히는 新郎은 아조 어리고 칠엄는 천모습마히 모양이며서 新婦의 美醜와 態度를알피고 허야말知覺이 잇을것가지도 아니하더라.

다만 고귀를숙이고 코를졸리~하며 안존자리가 便치안은듯이 부스럼~ 소리를너며 무릎을 세웠다. 노았다하며 앓겼더라. 나는 속으로「저것이 新郎이야!」하는 사던치안은 심각이 제철느니라. 新婦의 옷을 섰던다는말을 既往을엇섯나이다. 그뒤서 혼자속으로



한일도 엄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니가 只今外지 貞節을 직려왔다는 것은 尼自身이 무슨 뜻이 있고 自覺이 있서 그런 것도 아니오 亡夫의情을 못니쳐 그런 것도 아니오 亡夫만한 人材를 다시 얻지 못하야 그런 것도 아니오 또한 國家와 社會를爲하야 큰 罪業이나 目的을貫徹하라고 獨身生活를 하려온 것도 勿論 못됩니다 다만 男子들이 만드러온 1 우리 社會에 因襲道徳과 外道로 風俗이 나로 하야 守節을 하지 아니치 못하게 할 임니다.

그러면 니가 願치안는 貞節을 직히노라고 人生의 本能的인 性慾을 누르고 自然히 소사오르는 사랑의심을 의지로 虛僞로 神聖하다는 生活를 한 것은 그 裏面이야 말로 眞實노는 불나고 의지를 잃고 慘淡한 것임이다 오날 우리 朝鮮社會의 反面에 아직도 나의 過去와 같은 悲運에 눈물겨운 生活를 繼續하는 불상하고 可憐한 女子를 몇千 몇萬으로 헤아리지 못할 것임니다.

그런故로 지난 나의 學生의 가담고약하고 可憐운 少年 鮮명한 눈물의 歷史를 讀者여러분에게 소개

新 女 子

介言야 萬分의 一이라고도 社會의 反省을促하고 조금이라도 女子自身의 矧다름이 잇다하면 나의 執筆 目的은 임의 達하엿다고 自足할 것임니다.

나는 京城에서든 問閣이나 財産으로 손을 얹는 金龜判의 막넛살임니다 구한채 갖나서 브러 錦衣 玉食이 허락서 모든 사람의 稱讚과 못니웃의 부러움의 焦點이 되야 王宮後園에 香美를 獨點한 사랑다운 것치 豪華를 고 實하게 잘았나이다.

그적에 나는 世上에 사뭇친 모든 근심과 슬픔은 도모지 헤아릴길의 엄섯나이다.

이러케 덧업는 줄가음과 滿足한함이 무르익은 사이에 호르는 歲月은 나로 하야 몸 어느듯 十六歲의 봄을 맛게 하엿나이다.

이적에 나의 父母는 누누님들의 시집 잘 못가서 야나 男便 잘 못맞다서 밤늦숙을 씹이고 의를 타우는 樣이 이척랑고 恨이 되서서 사랑하는 막넛살 나는 아뭇도록 잘 풀으고 잘 가리여서 조흔 데로 시집가서 內外 琴瑟 잇게 자니는 것을 보시면 願이 업것다 고 하서서 그만히 단이는 媒婆들의 甘言利說을 리 다 풀너쳐사드나 因緣이 말는지 業怨이 말는지

# 靑 孀 의 生 活

金 扁 舟

主幹金先生

첫보니라사든것은 한번치 못하나마 이제첫보림이다  
 나의 지난生活은 전혀 感傷的이오 年譜의歷史  
 이오 늦김만흔 過去이니까 나는늘― 尼斯經事  
 를하나 글여보고신허첫셔요 그리고고 나는 막  
 이우러진 늙은몸이니까― 아모흥하물이 없기  
 로 나의 經驗한바를 하나도생지도안코 숨기지  
 도안코 事實그디로 아모도모르든 秘密까지도  
 『新女子』를 爲하야公開함입니다

突의 全盛時代도 어느듯 그리는 過去로 사라져  
 버리고 綠蔭이 옥어진곳에 녀름울기는 心소  
 리가 人生을嘲笑하는듯 사람의感懷를 자아나나  
 이다.  
 아아! 人生의 봄드름에 싹갓치밧었사 이루어  
 지는眞理를다시금 늦기자안울수 없나이다.

나도몇히前에는 아름다운싹갓치 임부고 자라는  
 果實 나무갓치 洋々를將來를 바랐섯건만은 어느  
 四十餘歲의老境에 나르기된것을 생각하니 다  
 시금 懷古의눈물을 禁할수업나이다.

더군다나 나는 가장을잡고 자람할만한 맛잡고  
 貴한 靑春時代를 너무도 無意識하게寂寞하고 의  
 롭고 외롭고 슬게지난생각을하면 心삼스럽게 우  
 리社會가 怨望스럽고 우리父母가 野俗함을늦기지  
 안을수업나이다.

그러나 우리社會에서는 나로하야끔 世上에갓지  
 음도 모르고 人情에사듯한맛을 보지못하고 無味  
 하고 쓸쓸스럽게 늙어오게한代身에 靑孀으로 守  
 節하여 온―가득한 貞節夫人이라는 美名을 나의  
 게 주었나이다.

그것으로 나도 한동안은 多小間滿足을 늦기인  
 일드있고 所謂失節을었다는 女子들을비웃고 唾罵